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옛것 설을 씌우며 우리는 비로소 닭의 해를 맞았다. 매년 1월1일이면 흔히들 무슨 해가 밝았느냐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건 틀렸다. 갑자(甲子) 을축(乙丑) 육십갑자는 음력 기준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정유년(丁酉年). 정유(丁酉)에서 정(丁)은 십간(十干)의 네 번째로 붉은 색을 상징하고, 유(酉)는 십이지(十二支)의 열 번째로 닭을 뜻한다. 그래서 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다.

붉은 닭의 해라 하니까 '빨간 닭'이 어디 있는나며 의문을 갖는 이들도 있다. 한데 상징으로서 말과 실제로도 있다. (강원도 횡성)의 한 농장에 가면 만날 수 있다) 검은색의 깃털이 있는 이 닭을 가리켜 조선시대엔 화계(火鷄)라고 했다. 화계를 먹으면 몸이 뜨거워져 불이 나는 것 같다는데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경제정책의 '계관만축도(鷄冠萬軸圖)에도 등장하는 닭이다. 하지만 오로지 식용으로만 쓰이는 육계(肉鷄)가 들어온 후 화계는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다.

어찌 됐든 닭만큼 우리와 친숙한 동물도 없을 것이다. 수많은 속담들이 이를 말해 준다. '닭 벼슬이 될 망정 쇠꼬리는 되지 말라' '닭도독이 소도독 된다'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쓴다'. 모두 널리 알려진 속언(俗諺)이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는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닭 소 보듯' '달구새끼 봉이 되라' 등도 마찬가지다.

그런가 하면 '닭은 구슬을 보리알만큼도 안 여긴다'(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기에겐 필요한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라거나 '닭장에 족제비를 몰아넣는다'(남에게 가혹한 짓을 한다)는 말도 있다. 요즘 시구과 맞물려 그동안 금기(禁忌)가 되다시피 했던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을 떠올리는 이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닭대가리 등 말도 많지만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 몰랐던 국민학교 시절, 실제로 닭 모가지를 비틀어 본 적이 있다. 고사리손으로 애써 비틀었는데 잠시 기절했던 닭이 금세 정신을 차리고 푸덕덕 날아가던 그 어릴 적 기억이 새롭다. 온 국민이 나서서 쉽지 않은, 닭 한 마리 잡기의 어려움을 그때 난 벌써 알아버린 거다.

방학을 맞아 사골에 갈 때면 외할머니는 닭장에서 아직 따뜻한 닭갈을 꺼내서 건네주시곤 했다. 우리는 젓가락으로 달걀 양쪽에 구멍을 내고 후루

룩 들이마셨다. 날계란을 먹으면 노래를 잘한다는 어른들의 말을 그때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승부욕이 강한 사람을 가리켜 '싸움닭'이라고 하는데 아직 국민학교에도 들어가기 전에 닭 한 마리를 잘못 건드렸다가 닭 부리에 얼굴을 쪼인 기억도 있다. 지금도 거울을 보면 그때의 흉터가 입가에 희미하게 남아 있다.

여하튼 지난 한 해만큼 닭이 수난을 겪은 해도 없을 것 같다. 조류인플루엔자로 3000만 마리에 가까운 닭이 산 채로 묻힌 것을 말하면 아니다. '닭대가리'라는 표현이 있지만 닭은 다른 조류들에 비해 똑똑하면 똑똑했지 멍청하지 않다고 한다. 주인도 알아보고 영역도 지킬 줄 안다는 것이다. 한데 대통령을 조롱하면서 '닭그네'란 말까지 나왔으니 오히려 닭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하나 아니까.

그도 그럴 것이 닭은 다섯 가지 덕을 갖췄다는데, 계유오덕(鷄有五德)이 그것이다. 노(雉)나라 애공(哀公) 때에 전요(田饒)는 이렇게 말했다. "머리에 관(베슬)을 쓴 것은 문(文)이요, 발에 갈퀴(꿩)를 가진 것은 무(武)요, 적에 맞서서 감투하는 것은 용(勇)이요, 먹물 것을 보고 서로 부르는 것은 인(仁)이요, 밤을 지켜 때를 잃지 않고 알리는 것은 신(信)이다."

한(漢)나라 때 한영이 지었다고 하는 한시외전(韓詩外傳)에는 닭이 가진 다섯 가지 덕을 오상(五常)에 비유한다. 유교에서 말하는 오상(五常)이란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 곧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다. 닭은 서로 불러 먹이를 취하니 인(仁)이 있음이요(相呼取食仁之德也) 싸움에 임했을 때 물러서지 않으니 의(義)가 있음이요(臨戰不退義之德也) 관을 바르게 썼으니 예(禮)를 갖췄음(正其衣冠禮之德也) 늘상 경계하여 지켜내니 지(智)가 있음이요(常戒防衛智之德也) 어김없이 때를 알리니 신(信)이 있음이라.(無違時報信之德也)

탄핵정국과 '살계'의 교훈

이처럼 오퍼까지 갖췄던 닭은 인간에 의해서 무시당하기 일수인데 특히 수탉은 문란한 성(性)의 상징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수탉은 사람처럼 성기를 삽입하는 게 아니라 그저 키스하는 수준이어서 짧은 시간에 여러 암컷들과 교미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걸 사람들은 문란하다고 하지만 그저 진화의 산물일 뿐이다. 닭은 많은 병아리들을 거느리고 있어 다산(多産)의 상징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결혼식 초례상에 닭을 보자기로 써서 놓아두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닭과 관련한 사자성어도 많다. 먼저 계견승천(鷄犬昇天)이다. 한나라 때 유안(劉安)이 비약을 만들어 먹고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되었다. 그때 닭은 비약 부스레기를 닭이랑 개가 주워 먹고 우주의 기운을 얻어 분수 넘치게 신선 노릇을 했다

고 한다. 누구 한 명 권력자가 나오면 사돈내 팔촌까지 권력의 떡고물이라도 차지하려는 인간들의 행태를 계견(鷄犬)만도 못하다고 경계하는 말이다. 작금의 최순실 사태가 바로 그 꼴이다.

닭 한 마리 잡자고 온 나라가 들쭉이요 있다. 이 때 생각나는 사자성어는 닭을 잡아 원승이를 경계한다는 '살계경후(殺鷄敬後)다. 곡예장의 원승이가 재주를 부리지 않자 주인이 닭의 목을 쳐 원승이를 길들였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한 사람을 벌해 다른 사람에게 경고한다는 뜻이다.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도 이제 대통령 탄핵을 받든지 이뤄냄으로써 영웅도 없이 박근혜 정권에 부여했던 수많은 원승이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수탉은 기독교에서 회개(悔改)의 상징이기도 하다. 유럽 교회의 첨탑에 닭 모양의 풍향계가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하지만 나라를 맡아먹은 자들은 지금 눈곱만큼의 회개도 없이 쇠고집 못지않은 닭고집을 부리며 오히려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후안무치(厚顏無恥)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짙은 어둠 속에서 하릴없이 길고 긴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닭이 울면 언제나 어둠이 끝나고 새벽이 오는 법. 정유년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우리에게도 찬란한 새벽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내일은 또 금남로 촛불 집회(14차)에 머릿수 하나라도 보태려 가야겠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 학습·토론 혁신학교 열린다

6일 시의원·부서장 등 참여 적정임금·원하청 관계 개선 등

광주시가 민선 6기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일자리 정책 관계자들이 모여 학습하고 토론하는 혁신학교가 열린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사회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광주형 일자리 혁신학교' 개강식이 오는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혁신학교는 일자리 정책 관계자들이 민선6기 광주시의 중점 시책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유기적 협력을 통해 그 성과를 광주시 일자리 정책분야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학교에는 광주시의원과 광주시 경제·일자리 관련 부서장과 직원,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위원, 일자리 관련 센터 활동가 등이 참여한다.

강좌는 오는 6일부터 5월2일까지 주1회씩 총 13차례 열리며 ▲적정임금 및 노동시간 ▲원하청 관계개선 ▲노사책임경영 ▲사회협약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강의로 구성된다.

각 강좌 후에는 박태주 서울노사정협의회 서울 모델협의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이 이어진다.

개강일인 6일에는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선임



특검에 소환된 피의자·참고인

최순실 씨,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중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신임용합대학장, 이인성 이화여대 의료산업학과 교수,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들 우진병 특혜 관련 백승식 경위.

연구위원이 '우리나라의 일자리 현황과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라는 주제로 첫 강의를 진행한다.

박병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광주형 일자리 혁신학교를 계기로 시대적 화두인 일자리 논의의 장이 더욱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는 특정 기업의 평균보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만들어 구직자들에게 제공해 실업난을 해소하는 한편 인건비를 줄여 대기업 투자를 유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선순환 고용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광주시는 '광주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성공

을 위한 주요 과제로 '광주형 일자리'를 꼽고 있다.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부족에 따른 '취업절벽' 속에 노사정 합의를 통해 새로운 임금 구조의 고용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데서 시작됐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순천 선암사·해남 대흥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순천 조계산 선암사와 해남 두륜산 대흥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했다.

2일 문화재청은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에는 선암사, 대흥사를 비롯해 양산 영축산 통도사, 영주 봉황산 부석사, 안동 천등산 봉정사, 보은 속리산 법주사, 공주 태화산 마곡사 등 7곳이 포함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현지 실사를 거쳐 내년에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등재 여부가 판가름난다.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2011년 5월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전통사찰 세계유산 추진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시작됐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7개 사찰이 2013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랐다.

앞서 문화재위원회는 작년 8월 '한국의 전통사찰'을 2017년도 세계유산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등재 신청서를 보완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들 사찰이 창건 이후 지금까지 신앙·수도·생활의 기능이 어우러진 종합 승원으로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담양 대덕 호두농장 특산물

무공해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담양 대덕의 특산물로서 부모님 **호도선물, 명절선물**로 최고입니다!!

어린이들 머리에도 좋은 호두 하루 3~4알로 건강을 지키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안전성 검토 무농약 인증

2016년 산림청장상 수상

담양 대덕 호두농장 대표 진철호
061-382-4728 / 010-3604-6712
전남 담양군 대덕면 남대덕로 424-2

2017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47)	광주교육대학교(157)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7.3.3.(금) 09: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7.3.4.(토) 09:10 (특급반)	·월요일 오후반: 2017.3.6.(월) 14:1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6.3.2.(목) 09: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6.3.4.(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7. 1.18(수)~3. 4.(토)	2017. 1.18(수)~3. 4.(토)
수업기간	2017. 3. 3.(금)~2017. 8. 12.(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7. 3. 2.(금)~2017. 8. 12.(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년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 취득 가능 ·각 현문학회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영과 후) 교육감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수 3급~사범대학기회 부여	·1,2년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 취득 가능 ·각 현문학회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영과 후) 교육감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수 3급~사범대학기회 부여
문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선생명: 010-3614-4160	·문 의: 062950-4243 ·지도교수선생명: 010-3614-4160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수강생 모집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이동식 목조,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2017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2017년 1월 23일(월) ~ 2017년 3월 10일(금)
·교육기간: 2017년 3월 2일(목) ~ 2017년 6월 8일(목)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수강료: 20만원 (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igeonung [인터넷 수강신청]
·접수문의: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

2017년도 1학기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온라인신청: 과정명 클릭 수강신청 핸드폰인증 신청 수강료납부
·오프라인신청: 방문접수, Fax접수(520-4245), 전화접수(520-4241~4243, 4248)
·수강료: 20만원(예금주: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국민은행 773901-01-476736
·기간안내: 수강신청기간: 2017. 2. 1(수) ~ 2. 28(월)
교육기간: 2017. 3. 6(월) ~ 6. 12(월)
매주 월요일 주간 3시~5시 야간 7시~9시
·상담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